

마스크 쓴채 1m 이상 거리두고 차분한 쇼핑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 휴일인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우산동 근린공원에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자와 바둑을 두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일부에서 시민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

- 공동**
 - 발열, 호흡기 증상 및 14일 이내 해외여행한 경우 이동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 두기
 -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하기
- 회의 등 업무**
 - 가급적 영상회의와 전화회의 등 비대면화
 - 국내외 출장 최소화하기
 - 모임, 동아리, 회식 줄이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조성하기
- 음식점 및 대형유통시설**
 -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이용하기
 - 식식,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 이용 최소화하기
 - 쇼핑카트, 장바구니 이용 시 손소독제 사용하거나 장갑 착용하기
- 결혼·장례식**
 - 행사는 가급적 간소하게
 - 가급적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하기
 - 식사 시 한방향이나 지그재그로 앉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첫 주말 둘러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된 첫 주말, 광주·전남지역 유명 콘도·리조트와 휴양림, 공원 등은 지역민들로 북적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내놓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어 생활방역역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26일 낮 최고기온이 21도를 기록하면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수생태공원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재개장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생태공원 관리소는 정문 주 출입구로만

유원지·백화점 등 발길 잇따라 영화 관람객들 건너뛰어 앉고 식당 화장실 손씻는 고객 많아 세부 지침 대체로 잘 지켰지만 일부 등산객 마스크 미착용도 입장을 제한하고 6명의 직원이 마스크 착용 방문객들에 대해서만 입장을 허용하고 2m 거리를 유지한 채 둘러보기를 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되고 있었다. 공원을 찾은 유지는(26·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호수공원이 다시 운영을 시작

해 찾았는데, 거리두기를 당부하고 철저히 관리해 안심하고 둘러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서구 관천동 유스퀘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주말을 만끽하는 시민들로 북적였고 CGV광주터미널점을 찾은 가족, 커플 관람객들은 테이블을 하나씩 건너뛰고 앉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도 마스크를 쓰고 개인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쇼핑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쇼핑센터 식당가 화장실은 '30초 이상 손씻기'를 실천하는 시민들로 긴 줄이 섰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들이 탁자 사이 간격을 2m 이상 두고 앉았었고 약수와 포용 등을 자제하고 목례로 인사를 주고

받았다. 다소 아쉬운 점은 눈에 띄었다. 등산객과 상춘객으로 북적인 율림동 중심사 일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고 북구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노인들로 가득했다. 일곡근린공원을 찾은 청소년들도 마스크 없이 무리지어 돌아다녔다. 광주지역 개신교회 1451곳 중 현장 예배를 진행한 762곳 가운데 11곳은 출입자 연락처 기재나 종사자 하루 2회 발열 확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해 내용을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지검,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엄단

이달에만 5명 구속 재판 넘겨 걸쳐 판매한 고등학생(16)도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아동 성 착취물 32개를 판매했다는 글을 올리고 10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적용, 미성년자로 초범이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를 지휘, 구속했다. 여성의 알몸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남성들도 모두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태권도 사범 C(29)씨의 경우 지난달 메시지 앱으로 대화하던 초등학생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했다. 또 지난 2월 중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 등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D(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토록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한편, 지난달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겠다는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상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E(50)씨도 구속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수집해 100여차례에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도 성범죄 강경 입장

음란 동영상 올린 20대 벌금 낮춰달라에 "과하지 않다"

검찰 일관성 없는 처분 비판도 나치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심한 추정금 부과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25차례 음란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렇듯 배포·판매 수익을 계산하지 않아 추정금을 부과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같은 재판부가 동일한 날 선고한 A씨의 또다른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도 사뭇 다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2018년 8월까지 881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해 배포·판매하고 1825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A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1825만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동일한 형태의 사건임에도, 추정금 부과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82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담배꽂초 시비 끝 러시아인 살해 태국인 3명 항소심도 중형 선고

담배꽂초 투기 문제로 다툼을 벌인 러시아인을 살해하고 탈아난 태국인 불법체류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2)씨와 B(33)씨, C(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선고했다. 1심은 A(32)씨와 B(33)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C(30)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골프장으로 날아온 총알...담양서 캐디 맞아 부상 '아찔'

라운딩 동반 중 머리에 5.56mm 탄두 박혀 1.7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서 발사한 듯

군 당국 사고원인 조사... "보상 절차 진행할 것"

담양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가 머리에 실탄을 맞고 병원 치료를 받아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육군본부와 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40분께 담양군 R골프장에서 캐디 A(26)씨가 골프장에서 라운딩 동반중 갑자기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일어나 지인 도움을 받아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병원 CT 촬영 결과를 토대로 A씨 머리에 실탄 5.56mm가 박혀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병원에서 머리 정수리 부분에 박혀있던 탄두를 제거한 뒤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머리에서 소총탄 탄두가 발견됨에 따라 육군과 담양경찰은 합동 조사를 벌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육군 조사결과 이날 같은 시간 골프장에서 1.7km가량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육군 직속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

련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은 이 부대와 경계철책을 두고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개인화기 사격훈련전 3차례(1시간 전, 30분 전, 10분 전) 사격 안내방송을 실시했지만 골프장에 들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고 육군은 설명했다. 광주일보 취재 결과와 문제의 탄두는 외형이 완전한 형태인 점을 고려하면, 사격 훈련 당시 총알이 바위나 기타 장애물을 부딪치지 않고 허공으로 날아와 A씨의 머리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사격 훈련 도중 탄알이 멀리 날아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과 장애물을 맞고 튀어 날아갔을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조씨의 피해 사실이 군 사격 훈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
클래식 스타일 Classic |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